

뉴스홈 | 최신기사

<프로야구> SK 전력분석팀 "요미우리 만만치 않네"

송고시간 | 2008-11-05 1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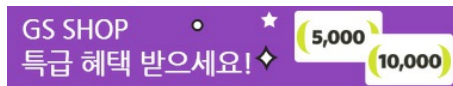


장현구 기자
기자페이지

<프로야구> SK 전력분석팀 "요미우리 만만치 않네"

(도쿄로자와<日사이타마현>=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 같네요."

13일부터 도쿄돔에서 열리는 아시아 4개국 프로야구 챔피언십 결장전 아시아시리즈 준비차 일본시리즈를 현지에서 관전 중인 SK 와이번스 전력 분석팀은 가상 상대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세이부 라이온스의 전력이 만만치 않아 팽팽한 승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SK를 2년 연속 한국프로야구 최정상으로 이끈 김정준 팀장, 노석기 대리 등 SK 전력분석팀은 4일 일본으로 건너와 사 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세이부 돐에서 계속된 일본시리즈 3차전을 지켜봤다.

김정준 팀장은 "요미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고 지나해 아시아시리즈에서 격돌했던 주니치 드래곤스보다 세다"며 말을 풀었다.

그는 "요미우리가 어떻게 2년 연속 센트럴리그 정상을 밟았는지 궁금했었고 일본시리즈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았다. 4명으로 구성된 선발 투수들이야 원래 좋았지만 니시무라 겐타로, 오치 다이스케 등 중간 투수들이 굉장히 좋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주니치는 우리와 스타일이 비슷해 도리어 대
비가 쉬운 편이었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다르다. 세스 그레이싱어, 우에하라 고지, 다카하시 히사노리, 우쓰미 데쓰야 등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고 중심 타선의 파괴력도 좋기에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요미우리, 세이부 모두 좌투수들의 내용이 좋다. 아시아시리즈에서 만난다면 이들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관건이다. 올해 목표를 아시아시리즈 우승으로 세운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기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2차전은 한국에서 TV로 봤던 김 팀장은 "세이부 타자들이 요미우리 중간 투수들의 빠른 볼을 전혀 때려내지 못해 현재 분위기로는 요미우리의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점쳤다.

노석기 대리의 분석은 더 구체적이다.

노 대리는 "훈련군단 요미우리와 세이부는 선수들에게 대부분을 믿고 맡기는 미국식 스타일을 펼치고 있다. 우리처럼 대타, 대주자 등의 '양념거리'가 별로 없다"고 평했다.

이어 "요미우리는 공격 스타일은 한화, 마운드는 두산과 비슷하다. 특히 선발진은 제구력으로, 볼펜은 힘으로 승부하는 마운드 운용은 두산과 흡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화와 상대하면 주자가 모였을 때 장타를 맞지 말자는 전략을 펼쳤다. 아시아시리즈에 요미우리가 올라온다면 비슷한 작전이 될 것 같다. 또 요미우리 중심 타자들이 스트라이크에 몰린 실투는 절대 놓치지 않는 점에 집중, 우리 투수들이 제구력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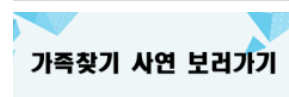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한편 김정준 팀장은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고전 중인 것에 대해 "승엽이는 1차전부터 상대 몸쪽 위협구에 밸런스가 흐트러졌다. 돌파구를 마련할 때 자신이 원하는 공을 어떻게 때려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스윙 폭을 약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any99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05 11:04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뿔뿔뿔...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장관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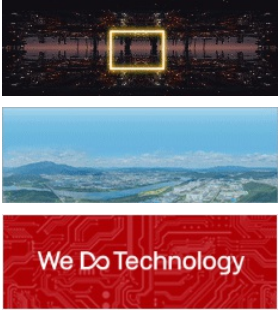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7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5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6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41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7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데미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갈쳐기(확단)(K-ODYSSEY)	채용	IR 클립	#홍

계약관리